

경제

텅빈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어제 전면 파업 ... 조합원 700여명 상경투쟁



'맨유 코리아투어' 홍보 아치

금호타이어가 2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코리아투어'를 앞두고 설치한 홍보 아치. <금호타이어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23일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광주공장 조합원 700여명은 이날 전면 파업과 함께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로 물러가 2천여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로 인해 광주공장은 지난 2000년 이후 9년 만에 생산라인이 완전 가동을 중단했다. 기아차 주변 상가도 손님이 없어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8만7천709원(5.5%) 인상, 주간 연속 2교대(8+8) 즉시 시행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임금을 동결하되 성과급

200%와 200만원을 지급하고 주간연속 2교대(8+9)를 내던 상반기에 시

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총 "기아차 전면 파업은 이기주의의 극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부의 전면파업은 노조 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행태"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기아차 노조는 자동차 판매 증가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나 국내 판매의 일시적 증가는 노후차 지원,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 연유할 바가 크다"

면서 "국민이 자동차산업 부양을 위해 각출한 세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은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마련과 보호를 위해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500선 눈앞

어제 코스피 1,496.49

코스피지수가 10개월만에 장중 한때 1,500선을 돌파했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45포인트(0.16%) 오른 1,496.49로 장을 마치고 8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지수가 장중이라도 1,500선 위에 머무른 것은 미국의 투자은행 리버브러더스가 파산한 직후인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이날 지수는 1.35포인트(0.09%) 오른 1,495.39로 출발한 뒤 외국인 매수세와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매에 힘입어 오후 들어 1,504.70까지 상승했지만 기관과 일부 기관이 팔자라 내리면서 다시 1,5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도 2천945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며 7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고 기관도 1천228억원의 순매수를 보였으나 개인은 3천681억원의 매도 우위였다.

코스닥지수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일보다 0.12포인트(0.02%) 오른 497.89를 기록하며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만원권 새 지폐

광주선 잘나가네

새 지폐인 5만원권이 광주지역 유통계에서 결제수단으로 수요보다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5만원권 평균 유통량은 주중 200여 장, 주말은 300여 장을 기록했다. 5만원권이 유통되면서 10만원권 수요 유통량은 한 달 전보다 3분 1로 줄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도 5만원권은 하루평균 170여 장이 들어오고 있으며 10만원권의 경우 한 달 전보다 50%가 줄어든 140여 장이 유통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코스피지수 1,496.49 (+2.45), 코스닥지수 497.89 (+0.12), 금리 (국고채 3년) 4.16% (-0.05), 원·달러 환율 1,248.70원 (+0.70)

실업은 늘고 고용은 제자리

IMF때보다 더 나빠진 광주 고용 사정

호남통계청 지역 고용동향 분석

IMF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실업률은 올라갔는데, 고용률은 제자리 결을 하는 등 광주지역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의 IMF체제 이후 경제 상황에 따른 고용동향 비교'에 따르면 광주지역 실업률은 97년 3.1%에서 올 6월 4.0%로 0.9%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도 97년 1만8천 명이던 것이 올 들어 2만1천8명으로 1만 명이 늘었다. 하지만 고용률은 97년과 올 6월 57.7%로 제자리 결을 했다.

광주의 경제활동인구는 97년부터 98년 사이에 남자는 3천명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1만7천명이 많

은 2만명이 감소해 7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 6월 사이에는 남자는 1만1천명, 여자는 1만9천명씩 늘어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포함)의 경우 외환위기 때 임금근로자보다 1만2천명이나 많은 3만1천명이 일자리를 떠났다. 또 올 6월까지 2만7천명의 임금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은 반면 비임금근로자 2천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지역, 97년(a), 09년 6월(b), b-a. Rows include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천명).

전남의 경우 고용률이 97년 6.9%에서 올 상반기 66.0%로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같은 기간 1.4%에서 1.1%로 하락했다.

전남의 경제활동인구는 이는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의 문제로 97년 104만2천명에서 올 6월 95만1천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골든브릿지그룹 베트남 진출

캐피탈사 설립

여수에 본사를 둔 상암저축은행을 인수한 골든브릿지그룹이 베트남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이어 캐피탈사를 설립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사무소 개설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골든브릿지그룹은 2006년 하노이 지주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2007년 호치민 자산운용사무소 개설, 지난해 클릭앤피넌스 인수까지 베트남 진출

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문구상 골든브릿지 베트남대표는 "베트남 여신금융시장은 아직 리스크가 주종인 초기단계지만 산업화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다"며 "중국과 더불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한 시장잠재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타이어 안타까운 '대차대조표'

맨유 스폰서 300억 홍보 효과 잇단 파업으로 320억 매출손실

금호타이어 노조가 25~26일 전면 파업을 벌인다. 사측은 24일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초창 경기의 스폰서를 맡아 글로벌 홍보전에 나선다. 이달 초부터 노조가 벌인 부분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320억, 전면 파업까지 이어진다면 피해는 눈덩이가 된다. 이런 가운데 맨유 초창 경기 스폰서 덕분에 누리게 될 홍보 효과는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대차대조표'다.

32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24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예정된 전면 파업으로 보는 손실 비용까지 포함하면 500억원의 손실을 예상된다. 파업 실시에 따른 기업 신뢰도 및 경쟁력 추락 등의 유·무형의 손해까지 더할 경우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해외 유명 구단에 4년 동안 거액을 쏟아부은 성과가 노조 파업으로 희석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맨유를 지원한 덕분에 지난해 축구 중주국인 영국에서의 매출이 2006년 대비 56.5% 증가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맨유 팬이 있는 중국에서도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2천95억원의 손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파업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40억을 지불한 만큼 360억원이 남는 장사를 할 셈이다.

여기에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까지 누리면서 영국에서는 지난 2006년에 비해 56.5% 증가했고, 중국 매출도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다는 게 금호타이어측 설명이다.

◇총파업 나서는 노조=금호타이어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노조 파업으로 2천95억원의 손실을 봤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난 2일부터 생산량을 30% 줄이는 태업, 15일부터 생산량을 50% 줄이고 20일 노조 간부들의 전면 파업까지의 손실액만

◇맨유 초창경기 스폰서=금호타이어는 24일 열리는 맨유 초창 경기의 타이틀 스폰서를 통해 300억원의 홍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 좌석이 조기 매진되고 경기가 공중과 TV에 생중계되는데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 지난 2007년에도 박지성 선수가 뛰는 맨유의 활약으로 200억원의 홍보 효과를 얻었다. 직접적인 홍보 효과로만 500억원. 금호타이어가 지난 2007년 '금호타이어컵 맨유 코리아투어'를 위해 4년간 스폰서 계약을 맺으며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고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건리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안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0210 011-002-2532.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